

“남녘땅에서 맞이하는 기쁨의 첫 설 되시길”

김문수 경기도지사 2월5일 하나원 방문해 인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월5일 탈북자 교육시설인 안성시의 하나원을 찾아 새해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추석 때와 달라진 교육시스템과 시설증축 등을 간단히 브리핑 받고, 새터민 교육생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새터민이란 남녘땅에서 새롭게 정착해 살아가는 탈북자를 칭하는 말로 철저한 보안 속에 교육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남녘 땅에서 첫 설날을 맞이해 기쁨이 두 배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게 낯설겠지만 새해엔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홀로 서기에 성공하고 북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또한 김 지사는 “북과는 달리 여가선 모두가 스스로 노력해 경제활동도 하고 경쟁에서 이겨내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교육을 마치고 나가시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위해 전폭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자립심을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월5일 탈북자 교육시설 하나원을 방문해 새터민 교육생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지사는 “모든 새터민들에게 다음도 프라이팬을 선물하고, 하나원 경비대원들을 악수로 격려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경전철 공사 가속도 낸다

각 공구별 동시다발적으로 공사진행

의정부경전철 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한 이후 3공구별로 공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의정부 중앙지구-효원동 회룡역-시청-시외버스터미널-송산동 구간을 잇는 경전철 공사는 동시다발적으로 3공구별로 공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1공구는 시청-발곡역 구간과 2공구는 시청-효자역 구간, 3공구는 효자역-차량기지 구간으로 2차로를 막아 왕복6차선에서 4차선으로 2차선이 줄어든다.

지난달 15일 시는 의정부시 고산동 671번지 일원과 의정부시 효원동 316-123번지 일대의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경전철 공사 편입을 위한 보상 공고를 냈다.



의정부경전철 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한 이후 3공구별로 공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를 토지와 지장물에 의견을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식 가져

최우수 자금동 및 우수 2개동, 장려 3개동



의정부시는 15개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동 주민자치위원 15명과 담당공무원 등이 각동을 방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금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투데이 나만의 풍선사탕만들기, 4월 소방관 아저씨와 함께하는 위기탈출 119 등 월별 이벤트를 개최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였으며, 송산동은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소식과 주민들의 문예작품 등을 담은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2007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결과 지역 현안문제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내 봉사활동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원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 야간반 및 주말반 운영 등 각동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로 주민자치위원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는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자치센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5개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동 주민자치위원 15명과 담당공무원 등이 각동을 방문,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우수 주민자치센터로는 자금동이 최우수, 의정부3동과 송산동이 우수, 신곡1동과 장암동, 신곡2동이 장려상을 차지해 2월 월례회시 표창장과 함께 시상금을 받았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금동은 프로그램별로 감사 평가를 실시해 상·하반기 각명의 감사를 선정해 성과급을 지급해 프로그램 활성화 및 수준 높은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제공했다.

우수기관인 의정부3동은 3월 화

경기도, 대규모 조직개편 임박 예고

7개과 신설하고, 소방도 3교대 근무로 변경

경기도가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표방하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경기도는 2월1일 도의 정책기획 부분과 통합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7개과를 신설하고, 유사기능 업무의 통합, 소방 3교대 인력 보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급변하는 경기도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 담당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업무 이관, 통폐

합 등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는 만큼 소방인력을 제외하면 인력증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조직개편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7개 과의 신설이다. 디자인총괄추진단(행정1부지사 직속),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한시기구, 경부시 직속), 경쟁력강화담당관(한시기구, 기획관리실 소속), 투자심사담당관(기획관리실 소속), 남북협력담당관(2청 기획행정실 소속) 등 5개 과는 도가 당면한 현안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설된 것이며, 공보담당

관(대변인실 소속), 감사담당관(감사관실 소속) 등 2개 과는 도청 이사의 통합과 조정을 맡게 된다.

유사기능을 가진 업무에 대한 이관과 통합도 이뤄졌다.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부시 소속이었던 국제통상과가 행정1부지사 직속의 국제협력관으로,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2청 기획행정실 소속이었던 감사담당관이 행정2부지사 직속으로 변경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총 53개 담당의 업무 이관과 통폐합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었다. 소방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유일하게 신규증원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현재 2교대인 소방인력의 3교대 근무를 실시하기 위해 올 한해 총 90명의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소방공무원과 유사 직종인 경찰청, 교정직 등은 대부분 3교대 근무지만 소방은 2교대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번 조직개편이 소방인력 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을 법인화하면서 36명의 공무원이 복귀하게 되며 이 인력과 기존 업무를 조정하면서 조직개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하고 “2월 12일 도의회 안건 상정, 3월 초순 공포, 중순 인사배치 완료로 목표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중앙천과 부용천에 자전거전용도로 여의도까지 출퇴근 가능

의정부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부용천과 중앙천에 자전거전용도로 총 25km를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중앙천은

녹양동 양주시에서 호원동 서울시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좌,우 14km를 한창 공사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4.6km를 완료했고, 9.4km는 2010년까지 마무리 된다.

부용천은 중앙천 합류부에서

송산지구계까지 좌,우 11km중 4.2km 구간을 완료하고, 나머지 6.8km 구간은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중앙천에 2010년까지 383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한다. 하천 곳곳에 징검다리, 여울, 여울형 징검다리, 자연형 통나무보 등을 설치한다.

중앙천 곳곳에 정수식물 및 수변식물 등 초화류를 심고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동심을 심어 줄 수 있는 하천으로 꾸미어 진다.

부용천은 올해말까지 110억원을 투자하여 생태습지, 관측터, 및 수변부대, 징검다리, 징검여울, 어도, 여울 및 갈대, 참표 등 수생식물을 식재한다.

특히 부용천에 빛나무를 심어 2009년 이후가 되면 빛꽃이 장관을 이루게 되어 도시속의 자연의 정취를 만끽 할 수 있을뿐 아니라 경기



의정부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부용천과 중앙천에 자전거전용도로 총 25km를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낙농산업 육성 128억원 지원

낙농체험목장 ‘Milk School’ 사업은 2개소 조성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배합사료가격 인상과 열악한 노동환경, 환경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 농가를 위해 경기도가 올해 128억원을 지원한다.

중점지원사항은 ▶생산성 향상 ▶축사환경개선 ▶우유소비 확대 ▶관

광농업 등 128억원을 지원한다. 생산성 향상분야는 25억원을 투입해 등록, 심사, 검정, 정액공급, 개체관리기 등을 지원하는 젖소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해 산유량 증가 및 1등급 원유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축사환경개선분야는 65억원을 투입해 축사 주변조경을 통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와 환경개선제 지원을 통한 악취 및 해충제거 등을 추진하여 환경문제에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초수급생활자 및 차상위계층 등 불우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우유를 급식하는 우유소비 확대 분야에 32억원을 투입, 최근 정제 및 감소추세에 있는 우유소비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촌관광분야는 6억원을 투입하여 낙농체험목장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낙농체험목장 ‘Milk School’ 사업은 2개소를 조성, 1만2천명의 체험객을 유치하여 1억 5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린바 있으며, 주변의 슬로푸드마을 및 기존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활력 있는 농촌만들기와 농촌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는 농촌관광분야는 6억원을 투입하여 낙농체험목장을 확대 추진한다.



지방행정동우회 신년인사회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지방행정동우회신년인사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신년 하례인사를 하고 있다.



평화생태공원 심포지움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교류, 자연생태, 생태관광 등 향후 경기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정립하여 현실적이고 내실있

는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방향과 다양한 협력체계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2월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협력체계 구축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사랑의 등불 함께 밝혀요’

의정부시 녹양동 사랑나눔릴레이 운동

의정부시 녹양동은 지난 4일 사랑나눔릴레이 일환으로 사랑의 등불 함께 밝혀요 행사로 접수된 후원물품을 관내 사회단체장 및 후원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12월 7일 사랑나눔 크리스마스트리를 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하고 60일간의 사랑의 등불 함께 밝혀요 후행행사를 벌였다.

80여 개인 및 직장·단체가 후원한 가운데 지난 3일까지 접수된 결과 백미4천800kg과 라면 59박스, 케이크 38박스 등 총 1천5백여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접수되어 여러

운 저소득 가정 240여가구에 백미와 라면 등을 직접 전달해 주었다. 녹양동에 거주하는 박 모(79세, 남, 독거노인)할아버지는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웃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병우 녹양동장은 “어려운 이웃 돕기 행사인 사랑의 등불 함께 밝혀요 후행행사를 통하여 시민들과 어려운 이웃간의 따뜻한 감정을 교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민중의 고구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훈훈한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녹양동은 지난 4일 사랑나눔릴레이 일환으로 사랑의 등불 함께 밝혀요 행사로 접수된 후원물품을 관내 사회단체장 및 후원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 행사를 가졌다.